라페라리·마세라티·벤틀리·레인지로버…주급 1억 손흥민, 22억 규모 '슈퍼카 컬렉션'

17억! Car~ 좋네!

전 세계 499대뿐인 페라리 최고급 모델 '라페라리' 보유

주급만 1억 원이 넘는 손흥민(27·토트넘)의 애장품은 도합 22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 컬렉션'이었다.

영국 언론 '더 선'은 20일(한국시간) 손흥민이 보유하고 있는 슈퍼카 리스트를 일일이 나열하며 숨은 사생활을 낱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17억 원을 호가하는 페라리의 고급 모델 라페라리를 비롯해 마세라티와 벤틀리, 레인지로버, 아우디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초호화 승용차들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주급으로 약 1억6000만 원을 받는 손흥민은 전 세계 499대밖에 없는 라페라리 가운데 하나를 몰고 다닌다. 다만 원래 빨간색인 라페라리를 검은색으로 주문제작 했는데, 이는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널의 상징색인 붉은색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상세하게 보도했다.

손흥민(토트넘)의 '애마'인 페라리의 고급모델인 라페라리의 모습. 사진처럼 라페라리의 색깔은 원래 빨간색이지만 손흥민은 소속팀의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널의 상징색인 붉은색을 피하기 위해 검정색으로 주문제작 했다. 스포츠동아DB

매체는 이어 "손흥민은 아우디 R8 쿠페와 마세라티 르반떼를 비롯해 레인지로버와 벤틀리 차량을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차량을 모두 합친 가격은 한화로 약 22억 원에 이른다.

손흥민의 애마가 보도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에도 손흥민이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한 채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소유 차량에 대한 기사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이처럼 그의 애마 리스트가 상세하게 나열되지는 않았다. 최근 토트넘의 에이스로 떠오른 그를 향한 현지 언론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손흥민의 연봉은 약 9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를 주 단위로 나누면 1억6000만~1억7000만 원 수준이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 **전도연(주요 출연작)**

▲1973년 2월11일생 ▲1993년 서울예대 방송연예과 졸업 ▲1992년 MBC '우리들의 천국'으로 연기 데뷔 ▲1994년~ '종합병원' '사랑의 향기' '젊은이의 양지' 등 드라마 ▲1997년 '접속'으로 스크린 데뷔 ▲1998년~ '약속' '해피엔드'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밀양' '멋진 하루' '하녀' '남과 여' 등 ▲2019년 '생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개봉 예정

주요 수상 경력

▲1997년 대종상·청룡상·영평상 신인상(접속) ▲1999년 대종상·청룡상 여우주연상(내 마음의 풍금) ▲2004년 디렉터스컷 여우주연상(인어공주) ▲2005년 대종상·영평상 여우주연상(너는 내 운명) ▲2014년 올해의 영화상 여우주연상(집으로 가는 길) ▲2007년 올해의 영화상 여우주연상(무뢰한) 외 다수

전도연이 꼽은 '인생 캐릭터 3'

나를 세상에 알린 '최보라'
연기의 폭 넓혀준 '이신애'
남성영화 편견 깬 '김혜경'

"어떡해! 주옥같은 게 너무 많아!"

호쾌하게 웃었다. 1997년 '접속' 이후 연기한 영화 속 캐릭터 중 셋을 꼽아 달라는 질문을 받은 뒤였다. 그의 영화와 연기를 본 관객이라면 그의 말에 "맞아! 맞아!" 고개를 끄덕일 터이다. "독보적 연기력"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 역시 그랬다. "너무 많기는 하지만…"이라며 모든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전제로 하고서야 자신을 키워낸 극중 인물을 조심스레 떠올렸다. 전도연 연기의 압권이 그들 속에 있었다.

● '해피엔드' 최보라(1999년·감독 정지우)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최보라를 연기하며 배우가 된 것 같다. 비로소 내가 배우임을 알게 해주었다."

해피엔드

밀양

무뢰한

● '밀양' 이신애(2007년·감독 이창동)

"제2의 배우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완벽한 기술적 연기가 아닌, 조금 부족하더라도 느끼는 만큼, 그 진짜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다."

● '무뢰한' 김혜경(2014년·감독 오승욱)

"남성적 느와르라는 장르 안에서 여배우가 대상으로만 비치는 관습에서 벗어나 (남성의 이야기를)대상화한 것 같다. 이후 그 남자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흥미롭지 않게 됐다."

국민배우 전도연의 운명같은 영화·삶·도전

▶1면에서 이어집니다

전도연은 15일 여느 때처럼 오전 5시30분에 일어나 아이의 식사와 등굣길을 챙긴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터뷰 장소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다. 그를 만나러 가는 택시 안 라디오에서는 영화 '너는 내 운명' 속 황정민과 함께 부른 주제가가 흘러 나왔다. DJ는 '밀양'에 관한 이야기도 전했다. 전도연에게 "이번 만남은 운명인가보다"며 인사를 건넸다. 예의 코웃음으로 화답한 그가 어쩌면 마뜩지 않아할 질문을 던지기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이었다.

-고3 때 청소년잡지 모델에서 CF를 거쳐 연기자가 됐다.

"어린 나이였다. 또래에 비해 돈도 많이 벌고 TV로 알려졌다. 연기가 재미있다는 생각을 못했다.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를 꿈꾸며 결혼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영화를 하면서 바뀌었다. 작품적으로, 캐릭터적으로 고민하고, 그저 주어진 대사나 외우는 게 아니었다. 재미있었다. '해피엔드'부터였다. 여전히 뭔가 하지만 힘듦이나 노동만큼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했던 터였다."

-이제 현장에서 허툰 상황을 그냥 넘기지 못할 만큼 치열해졌다.

"열심히, 정말 치열하게 소통하려 한다. 영화와 이야기, 연기의 감정 등에 대한 얘기를 사전 충분히 나누고 현장에 간다. 그게 안 될 경우 감독이 (날)납득시키든, (내가) 설득하든 소통은 직접적이어야 한다. 현장에서 나 혼자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감독이 배우를, 배우가 감독이 무서워 할 일이 뭐가 있겠나. 각자 열심히 하면 되는데."

-'밀양'의 이창동 감독에게도 그랬나.

"정말 기대했다. 그땐 무언가를 100% 알고 해야 하는데 모든 정답은 감독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와! 이 감독이라면 더욱 더…. 하지만 '그냥 느끼는 대로 하라'고만 했다. 대체 뭘? 어떻게?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았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다. 이럴 거면 왜 캐스팅했느냐, 원망하고 화내고….하하!"

-어떤 이들은 당신이 '직관의 배우, 그래서 타고난 배우'라고 말한다.

"음…, 음…. 직관이라면 직관이다. 작품과 캐릭터 분석 방식 등 연기의 기본을 배운 적이 없다. 시나리오를 읽고 그때그때 느낀 것에 집중했다. 모든 걸 알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밀양' 때 알았다. 혹독한 시간으로(웃음). 인물을 몸으로 느끼고 부딪쳐야 하는 것 같다."

-고통 끝에 한국 '여배우'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수상은 깊은 의미를 안기지만, '여배우'라는 표현에 반감을 지닌 이들 역시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여배우를 여배우라 하지, 뭐라 하나. 성차별에 관한 문제라면 조심스럽기도 하다. 굳이 나눠 부르려 한다면 난 '여배우'이고, 그런 게 필요 없다면 '배우'이다."

-여배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사랑을, 대중은 호기심을 더해 '스캔들'로 바라보곤 한다.

"선택의 문제다. 사랑을 할 때 감정에 집중할 뿐이다. 내 느낌을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워 감정을 추스른다고 해도 선택인 거다."

-여전히 사랑 이야기에 마음이 가나.

"좋다, 사랑 이야기. 하지만 이젠 다른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예능프로그램은 어떤가.

"주변에선 말린다(웃음). 너무 잘할 거 같은데.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이 좋다. 요리 등 집안일을 좋아한다. 남편은 늙어 고생하니 혹사하지 말라 하는데, 난 돌봐 달라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 얘기한다. 하하!"

-'밀양' 직후 결혼했다. '현모양처'를 바랐다는데, 결혼은 이른 편이 아니었다.

"남편은 '밀양'이 없었다면 우린 이뤄지지 않았을 거라 말한다(웃음). 이 남자 아니면 죽을 것 같아야 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현모양처라는 건 함께 만들어 가는 것 같다. 서로 맞춰가며 잘 사는 것. 그렇게 살고 있다. 행복?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만족한다. 매일 행복할 수 있나."

"엄마가 정서적으로 필요한 시기"인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 전도연에게 조심스레 세월호에 관한, 세월호로 아이를 떠나보낸 부모의 이야기에 관한 주연 영화 '생일'에 대해 물었다. 4월3일 선보이는 영화에 대해 아니 세월호에 대해 그는 길고 깊은 생각을 밝혔다. "바람 많이 불던 어느 날 팽목항을 찾았다"는 그는 "잊히고 잊혀지는 것"의 어렴풋한 아픔을 떠올렸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다. 기억해 달라."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